

# 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갈등



함께서울포럼 여성분과

발제: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목차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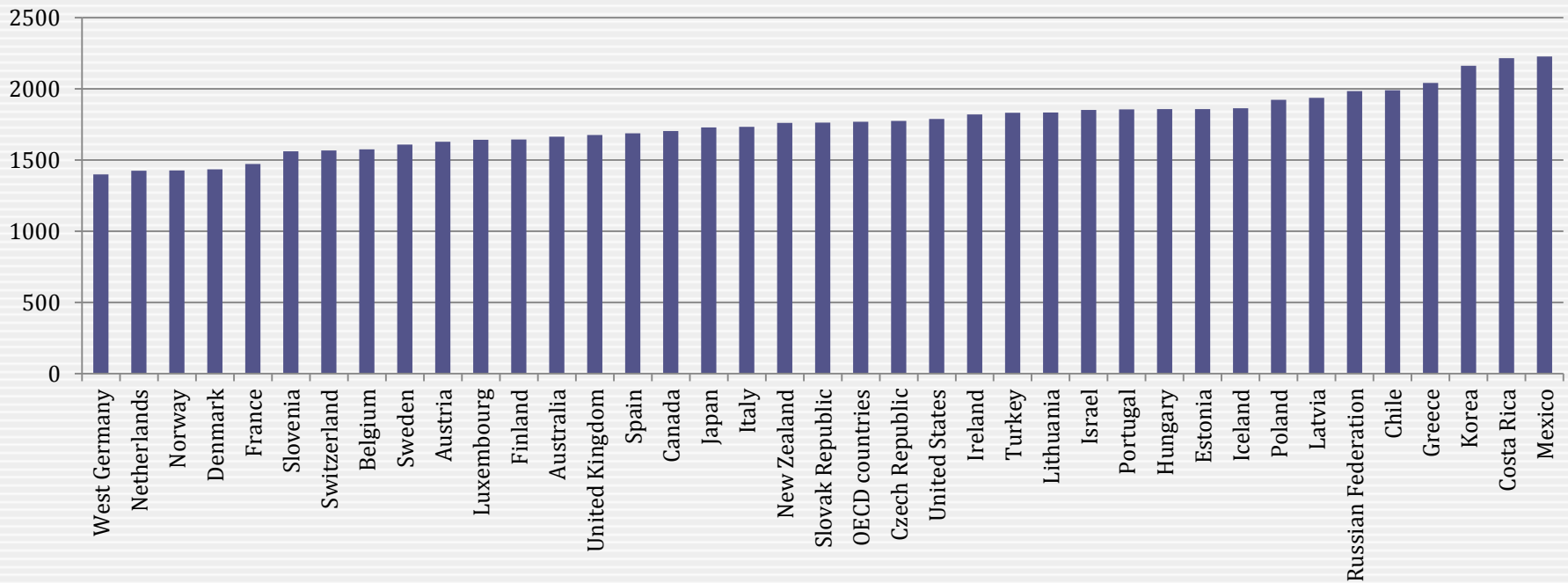
- 1)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차이
  - 성별 격차와 시간 사이의 관계
- 2) 시간부족 경험의 성별 차이
  - 어떤 사람이 왜 어느 시점에서 시간부족과 시간갈등을 경험하는가?
- 3) 시간주권 확보를 위한 외국의 시도들
- 4) 시간갈등을 줄이려면?

# 1-1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돌봄 부담

3

- 연간 노동시간 2163시간(2013) - OECD 회원국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1770시간

### OECD 회원국 연간노동시간(2014)



2013 기준: 한국, 벨기에, 터키  
2011 기준: 구서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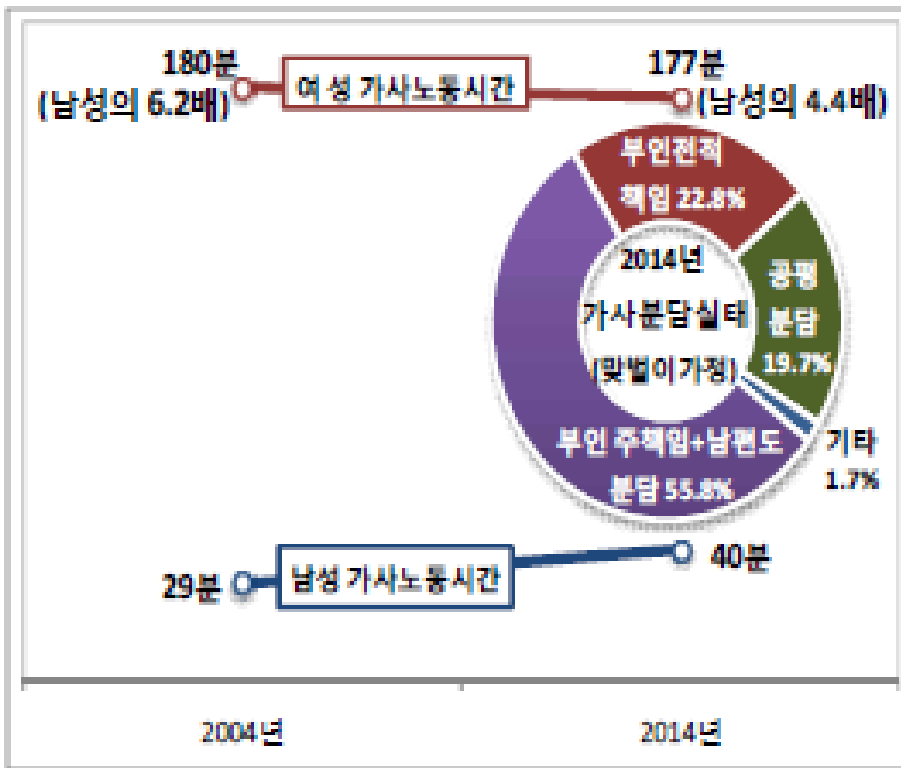
# 1-1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돌봄부담

4

- 남성과 여성의 돌봄 시간 격차 매우 큼
  - 가정관리 및 가족 및 가구원 돌봄에 할당되는 시간으로 측정되는 가사노동시간 남성47분, 여성은 3시간 28분으로 2시간 41분 차이남 (2014).5년 전에 비해 격차 14분 감소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조사)
  - 여성에게 돌봄과 가사부담이 편중되어 일 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초래
  - 자녀 양육기에 경력단절로도 이어지는 요인

# I-2 서울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 - 가사노동, 2014

## <일평균 가사노동시간 및 가사분담 실태>



- 2014년 만 10세 이상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4.4배
- 지난 10년 사이 성별 가사노동시간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 대부분 전담

# 1-2 서울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분담 -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

6

## 가사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분	부인이 주도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구분	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계	남편이 주로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남자	53.6	5.8	47.8	44.0	2.4	2.1	0.3
여자	45.8	2.6	43.2	52.7	1.5	1.5	-

## 가사분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분류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남자	29.3	57.7	12.2	0.6	0.2
여자	31.9	53.8	7.6	6.7	-

## 1-3 돌봄과 일할 권리?

7

- 남성

- 일자리에 대한 권리

- 여성

- 일자리에 대한 권리 + 돌봄/가사노동 부담의 재배치를 의미

## I-3 돌봄과 일할 권리?

8

- 초기 근대
    - 남성가장 & 여성전업주부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발전
    -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
  - 후기 근대
    - 취업노동영역의 우위
    - 취업에 근거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계선 무너짐(Entgrenzung).
    - Normal Family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 ✦ 노동시간 유연화
      - ✦ 노동장소 유연화
      - ✦ 불안정고용 증가와 정상적 노동이력의 감소
      - ✦ 노동자에서 노동기업가로
- 취업노동시간의 밀도 증가→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도 영향 미침. 초기 근대의 성별 경계선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분업 필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시간압박이 사적 영역의 시간 복지를 침해

(Karin Jurczyk, "Geschlechterverhältnisse und Alltagsarrangements - Neue Konturen der Teilung von Zeit und Arbeit", in: Ulrich Mückenberger · Siegfried Timpf (Hrsg.), Zukünfte der europäischen Stad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CF> 정지훈, 카카오택시와 알고리즘 노동자 <http://hankookilbo.com/m/v/e99f624e9f4d421ca37da9af6dac3e4e>.



# 1-4 여성과 남성의 시간경험 차이

- 여성은 남성만큼 일하지만, 돌봄 및 가사노동은 훨씬 더 많이 함
  - 평균노동시간의 차이보다 돌봄 및 가사노동에 투여되는 시간의 성별 차이가 훨씬 큼
-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 갈등 경험
  -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시간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됨
- 공적영역, 노동시장의 직선적이고 생산성 위주의 시간배열에 맞추다 보면 돌봄, 가사노동에 필요한 시간이 위축되거나 시간의 충돌 발생
  - 주로 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시간갈등을 경험하게 됨
- 장시간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을 벗어나 있는 노동은 공적 영역의 시간리듬에 맞추어 재배열되어야 하고, 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시간 요구가 중첩되는 지점에는 시간부족과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됨

# I-5 시간갈등과 압축적 시간경험

10

- 조주는 『기획된 가족』 (2013)
  - 중산층 화이트칼라 맞벌이 여성의 시간갈등과 압축적 시간경험 - 노동시장의 요구와 가족의 돌봄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압축적 시간경험을 함
    - ✦ 시간의 동시성: 돌봄과 공적 과제의 충돌
    - ✦ 시간의 밀도 강화: 관리적 돌봄노동과 업무량 증가
    - ✦ 시간의 최적화: 과제와 가족관계 기획
  -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테일러리즘화

예> 출근준비하는 한시간 동안 가사, 돌봄 관련 열 가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시행

출근준비-자녀깨우기-가족식사준비-침실 정리-식탁차리기-자녀 준비시키기-식사-자녀 머리 빗기기-식탁치우기-남편 배웅-설거지및 부엌 정리-욕실에서 출근 준비-옷 입고 화장-자녀들 등교/등원 시키기- 현관 잠그고 출근



## II-1 시간부족경험과 주요 이유-시간대별 시간부족

11

- 하루 중 가장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시간대

	오전 6-9시	오전 9-12시	오후 12-15시	오후 15-18시	오후 18-22시	오후 22시-오전 6시
여성	25.6	13.9	6.3	9.6	37.4	7.8
남성	22.1	14.3	5.7	10.2	41.1	6.5



# II-2 시간부족경험과 주요 이유

직업유무	시간부족 이유	직업 관련 활동	시간부족 이유 중 %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유직	시간부족 이유	직업 관련 활동	시간부족 이유 중 %	63.7%	36.3%	100.0%	
			성별 중 %	51.2%	34.8%	43.7%	
		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부양	시간부족 이유 중 %	53.5%	46.5%	100.0%	
			성별 중 %	16.0%	16.6%	16.2%	
		가사 노동	시간부족 이유 중 %	24.4%	75.6%	100.0%	
			성별 중 %	6.9%	25.7%	15.5%	
		학업 및 자기계발	시간부족 이유 중 %	56.4%	43.6%	100.0%	
			성별 중 %	20.4%	18.8%	19.6%	
		기타	시간부족 이유 중 %	61.5%	38.5%	100.0%	
			성별 중 %	5.6%	4.1%	4.9%	
	전체	빈도			432	362	794
		시간부족 이유 중 %			54.4%	45.6%	100.0%
		성별 중 %			100.0%	100.0%	100.0%
	무직	시간부족 이유	직업 관련 활동	시간부족 이유 중 %	41.9%	58.1%	100.0%
성별 중 %				31.6%	16.8%	20.9%	
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부양			시간부족 이유 중 %	19.6%	80.4%	100.0%	
			성별 중 %	15.8%	24.8%	22.3%	
가사 노동			시간부족 이유 중 %	5.6%	94.4%	100.0%	
			성별 중 %	5.3%	34.2%	26.2%	
학업 및 자기계발			시간부족 이유 중 %	48.0%	52.0%	100.0%	
			성별 중 %	42.1%	17.4%	24.3%	
기타			시간부족 이유 중 %	23.1%	76.9%	100.0%	
			성별 중 %	5.3%	6.7%	6.3%	
전체		빈도			57	149	206
		시간부족 이유 중 %			27.7%	72.3%	100.0%
		성별 중 %			100.0%	100.0%	100.0%

## II-3 시간부족의 주요 사유

14

- 이른 아침시간과 퇴근 이후의 시간에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비중이 남녀 모두 높음
  - 남녀 모두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출근 전과 퇴근 이후 시간대에 가정 내 활동에 대한 요구와 직업에서의 요구가 충돌.
-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
- 남성은 오후 18시 이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점을 느끼고 있음

## II-4 시간갈등의 유형

15

- 특정 시간대의 시간부족은 충돌하는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발생
- “가사노동의 테일러리즘화”
  - 자녀에 대한 돌봄을 공적/사적 서비스에 의뢰, 부부 또는 가족원 사이의 분담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시간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
- 시간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 자녀, 가족구성원 또는 본인의 갑작스러운 질병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계획되지 않은 초과근무, 잔업
  - 교통체증
  - 관공서 운영시간이 방문가능 시간대가 아님
  - 자녀의 여가시간(방과후, 방학, 휴일 등)에 근무해야 함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긴 출퇴근시간
  - 병원개원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움
  - 학교방학
  - 학교, 어린이집의 등교/등원 시간이 출근시간과 맞지 않음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음
  - 가족 또는 주변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음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Kommunale Zeitpolitik für Familien. Ein Leitfadens für die Praxis: Familien unterstützen, Standorte sichern, Unternehmen fördern, Berlin, 2014: 75쪽)

## II-4 시간갈등의 유형

16

유형	성별	자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각, 결근, 조퇴, 휴직 등)	여성	4.3	24.7	27.6	26.0	17.4
	남성	1.6	19.0	27.6	33.5	18.2
근무시간이 길어서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여성	12.0	25.6	31.1	20.7	10.2
	남성	12.5	22.1	32.5	22.7	10.2
가족을 돌보는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쳐서 어려움을 겪는다 (방학, 학교 등하교 시간 등)	여성	10.4	26.8	29.9	19.4	13.5
	남성	6.7	25.2	27.4	25.2	15.5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서비스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	30.5	31.1	20.0	10.2	8.2
	남성	20.9	36.4	24.5	11.5	6.7



## II-5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17

- 성별을 기준으로 연령, 혼인상태, 자녀유무, 근로시간,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앞의 4가지 시간갈등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음(회귀분석)

# II-5-1)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1)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b	유의수준
성별 혼인상태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12*	.003
	여성 중에서는 기혼여성이 더 자주 경험	.155*	.033
성별 자녀유무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03*	.004
	여성 중에서는 자녀 있는 여성이 더 자주 경험	.145*	.039
성별 연령	같은 연령이라면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01*	.004
	여성 내에서는 연령의 고저에 영향을 받지 않음	.008	.737
성별 노동시간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과 상관 없이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06*	.003
	여성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갈등 경험의 차이 없음	-9.642E-5	.960
성별 교육수준	같은 교육수준에서 여성이 더 자주 경험	-.196*	.005
	교육수준 차이는 시간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027	.632
성별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여성이 더 자주 경험	-.185*	.008
	소득이 높은 여성도 가족이 아플 경우 어려움 겪음	.043*	.034

## II-5-2)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19

2) 근무시간이 길어서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		b	유의수준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052	.485
혼인상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자주 경험	-.253*	.001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050	.494
자녀유무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211*	.005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071	.329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더 자주 경험	.170*	.000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082	.265
노동시간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갈등을 경험	-.007*	.000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054	.472
교육수준	교육수준의 영향 없음.	-.003	.963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067	.366
소득수준	소득수준의 영향 없음	-.039	.073

## II-5-3)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20

3)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어려움을 겪음 (방학, 등학교 시간 등)		b	유의수준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195*	.010
혼인상태	혼인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음	.018	.817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118	.113
자녀유무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452*	.000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198*	.008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더 자주 경험	.101*	.000
성별	여성일수록 영향을 받음	-.217*	.004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길수록 영향을 받음	-.007*	.000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209*	.006
교육수준	교육수준의 영향 있을 수 있음.	-.119	.051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169*	.024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유의미 하지 않음	.052	0.18

## II-5-4)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21

4)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서비스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어려움을 겪음		b	유의수준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090	.238
혼인상태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자주 경험	-.463*	.000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118	.113
자녀유무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452*	.000
성별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겪음	-.144*	.049
연령	연령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겪음	.200*	.000
성별	남성과 여성 차이 있음	-.145	.055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길수록 갈등을 더 겪음	-.006*	.007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136	.074
교육수준	같은 성별 안에서 교육수준의 차이 없음	-.070	.252
성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130	.088
소득수준	같은 성별 안에서 소득수준의 차이 없음	-.016	.464

# 요약

22

- 사적인 영역에서 자녀나 가족의 질병은 여성의 돌봄부담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시간갈등을 초래함
- 자녀의 방학, 어린이집 또는 학교의 등원/등교시간 등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공적 영역의 시간흐름과 단기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도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갈등을 겪음
- 장시간노동은 성별과 상관 없이 시간갈등의 요인임
  - 공적 영역의 시간흐름과 시간들이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분담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근로 시간이 길어지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력이 없다고 느끼게 됨
- 일시적인 시간갈등을 초래하는 공공기관의 휴무, 은행이나 관공서의 이용시간에 따른 시간갈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혼인상태, 자녀유무, 노동시간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침

# III -1외국의 시간갈등 극복 정책

23

- 지역 시간 정책 (Local time policy)
  - 노동시간, 공적/사적 서비스 시간, 도시의 시간 스케줄을 인간,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도록 조정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에서의 시간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자 하는 시도.
  -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의 일상생활 패턴에 초점을 맞춤
  - 이탈리아의 TEMPI DELLA CITTA (90년대 초반)에서 출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드, 핀란드 등으로 확대.

# III-1 외국의 시간갈등 극복 정책

- 지역 시간 정책 (Local time policy)

- 도시에서의 삶이 점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반해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싹트면서 공간정책(영역별 개발계획, 도시 계획 등)에서부터 시간 조직 및 시간 복지의 영역으로 관심이 옮겨감

- ✦ 도시의 시간정책은 직업생활, 공적, 사적 서비스 시간, 도시 시간스케줄을 조정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 ✦ 도시에서 일, 가족, 여가의 균형을 찾는데 느끼는 시간압축 경험, (특히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탄생
- ✦ 다양한 지역정책의 영역에 초점을 맞춤 : 교통, 학교, 아동 및 노인 돌봄, 안전, 서비스, 도시계획, 일·생활균형 등
  - 이 분야들을 인간적이고 시간인지적인 모드로 재구조화
- ✦ 지역 시간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참여적 정책



## III- 2European Council recommendation & resolution for local time policy

25

- Council of Europe –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19th Session  
26–28 October 2010: Recommendation 295 (2010) ‘Social time, leisure time:  
which local time planning policy?’
- Council of Europe –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19th Session  
26–28 October 2010: Resolution 313 (2010) ‘Social time, leisure time: which local  
time planning policy?’ 채택

### III-3 독일의 지역중심 가족정책 - 가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연대

26

- 정책의 영역
  - 시간효율적 이동성
  -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및 훈련/교육
  - 유연한 서비스체계의 지원
  - 시민근접적, 서비스 지향적 행정체계
  - 돌봄 및 훈련 인프라
  -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건강서비스
  - 가족친화적 여가활동 제공

# III-3독일의 지역중심 가족정책 - 가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연대

27

- 시간갈등 영역별 분석
  - 시간갈등 내용과 그 원인 - 해결방법 예시-목표설정 및 유의사항
    - ✦ 목표설정-개별목표- 달성도구
    - ✦ 가능한 협력 파트너의 모색

## Handlungsfeld II: Betreuungs- und Bildungsinfrastrukturangebote nach Maß

Analyse der Zeitkonflikte sowie Ableitung von Zielsetzungen		
Zeitkonflikte und Ursachen	Beispiele für Erhebungen	Zielsetzungen und Bemerkung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rankheit (Kind/er, Partner/-in, eigene): Betreuung des Kindes/der Kind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Zahl der Plätze in Kitas, Zahl der Tagesmütter/-väter, Betreuungsangebote für Schulkinder an Schulen (z. B. Mittagsbetreuung), verlässliche Ferienangebot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Verlässliche Kinderbetreuungs- und Bildungsangebot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zureichende Betreuungsangebote bzw. -zeite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treuungsangebote für hilfe- und pflegebedürftige Angehörige: mobile Pflege- und Hilfsdienst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Betreuungsangebote für hilfe- und pflegebedürftige Angehörig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eginn der Schule bzw. Betreuungseinrichtung mit dem Beginn der Arbeit nicht abgestimm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Öffnungszeiten von Betreuungseinrichtungen: früheste/ späteste Öffnungszeiten der Kitas, Unterrichtsbeginn und Kernzeiten in Schulen und Horte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Flexible Öffnungszeite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zuverlässigkeit des sozialen/familiären Umfelds, z. B. Ausfall von angekündigter Unterstützun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 1. Zielsetzung: Verlässliche Kinderbetreuungs- und Bildungsangebote

Die öffentlichen Betreuungs- und Bildungsangebote sollen zeitlich aufeinander abgestimmt, verlässlich und über das gesamte Jahr hinweg verfügbar sein, um den berufsbedingten Zeitbedarf der Eltern abzudecken.

Einzelziele	Instrumente	Bemerkungen
! <b>Verlässliche Kernzeiten</b> in Schule und Hort	! Systematische Berücksichtigung verlässlicher Angebote in der Kinder- und Jugendhilfeplanung, der Schulentwicklungsplanung und der Sozialplanung	
! <b>Verlässliche Übergänge</b> zwischen den Schul- und Betreuungsangeboten	! <b>Abstimmung der Betreuungszeiten</b> (in Kita, Schulen) untereinander sowie mit Arbeitszeiten und Nahverkehrstaktungen	
! <b>Ganztagschulen</b>	! <b>Förderung ergänzender Betreuungsangebote</b> , z. B. Leihomas, Babysitterkurse, ehrenamtliche Familienhelferinnen und Familienhelfer	
! <b>Notfallbetreuung</b> in Randzeiten oder bei Krankheit	! <b>Angebote zur Vermittlung von Notfallbetreuung</b> , z. B. durch Tagesmütter/-väter oder ehrenamtliche Familienhelferinnen und Familienhelfer	
! <b>Ferienbetreuung</b> während der Schulferienzeiten	! <b>Stützpunkte zur Notfallbetreuung</b> , bei denen Unternehmen Mitglied werden können	
! <b>Betreuung in vorlesungsfreien Zeiten</b> an Hochschulen	! <b>Förderung privat-gewerblicher Kitaträger</b> mit erweiterten oder ergänzenden Betreuungszeiten	
! ...	! <b>Aufbau verbindlicher Kooperationsstrukturen</b> der lokalen Akteure von Bildung, Betreuung und Erziehung im Rahmen kommunaler Bildungslandschaften	
	! ...	

**Kooperationspartner im Handlungsfeld Betreuungs- und Bildungsinfrastrukturangebote nach Maß**

Mit welchen Akteuren bestehen – getrennt nach Zielbereichen – aktuell Kooperationen? Welche Kooperationen sollen angestrebt werden?

	<b>Verlässliche Betreuungs- und Bildungsangebote</b>	<b>Betreuungsangebote für Pflegebedürftige</b>	<b>Flexible Öffnungszeiten</b>	<i>Bemerkungen</i>
Ansprechpartner (Lotse) in der Region/Kommune, der Familien und Betriebe über vorhandene Angebote informiert				
Eltern/Familien/Pflegende				
Freie Träger/Wohlfahrtsverbände/Kirchen				
Kindertagesstätten/Horte				
Tagespflegepersonen				
Schulen, Schulträger, Schuldirektion				
Eltern- und Schülervertretungen				
Jugendamt und Jugendhilfeausschuss				
Sozialamt und Sozialausschuss				
Landesverwaltungsamt, Schulverwaltungsamt				
Bündnis für Familie/Familienbüro				
Familienzentren/Mehrgenerationenhäuser				
Wirtschaftsförderungsamt und Wirtschaftsförderungsausschuss				
Betriebe, Mitarbeit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 Handwerkskammer				
Jobcenter				
Vereine, Freizeiteinrichtungen				
Bürgerschaftlich Engagierte				
Hochschulen				
Kommunen, Länder, Gemeinden				
Weitere: _____				

# IV. 시간갈등을 줄이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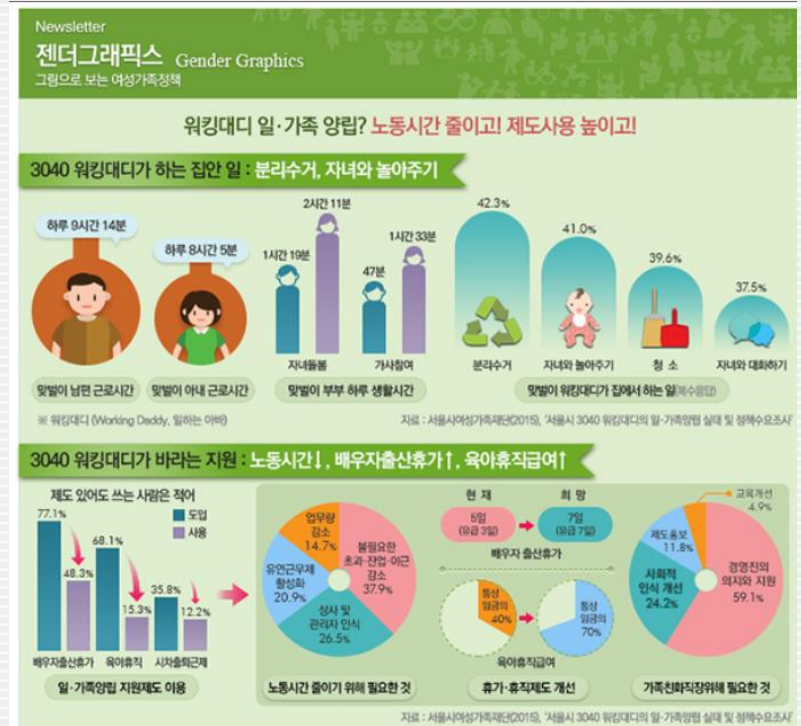
## • 변화의 조짐들

### 1) 공공보육시설, 공공요양원, Day care center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부담 감소. (2011년 서울시 전 시설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이용 아동은 51,294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23.9%→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13만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47.6%까지 증가 예정. 안현미, 국공립+100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발간예정)
- 공공 노인요양시설 및 서울형 Day Care Center

### 2)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돌봄의 등장

### 3) 30-40 양육대디(daddy)들의 변화



# IV. 시간갈등을 줄이려면?

32

	개인	가족	지역사회	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시간갈등 주 경험자의 시간주권 회복					
서로 다른 시간리듬의 동기화					
시간의 재분배					
시간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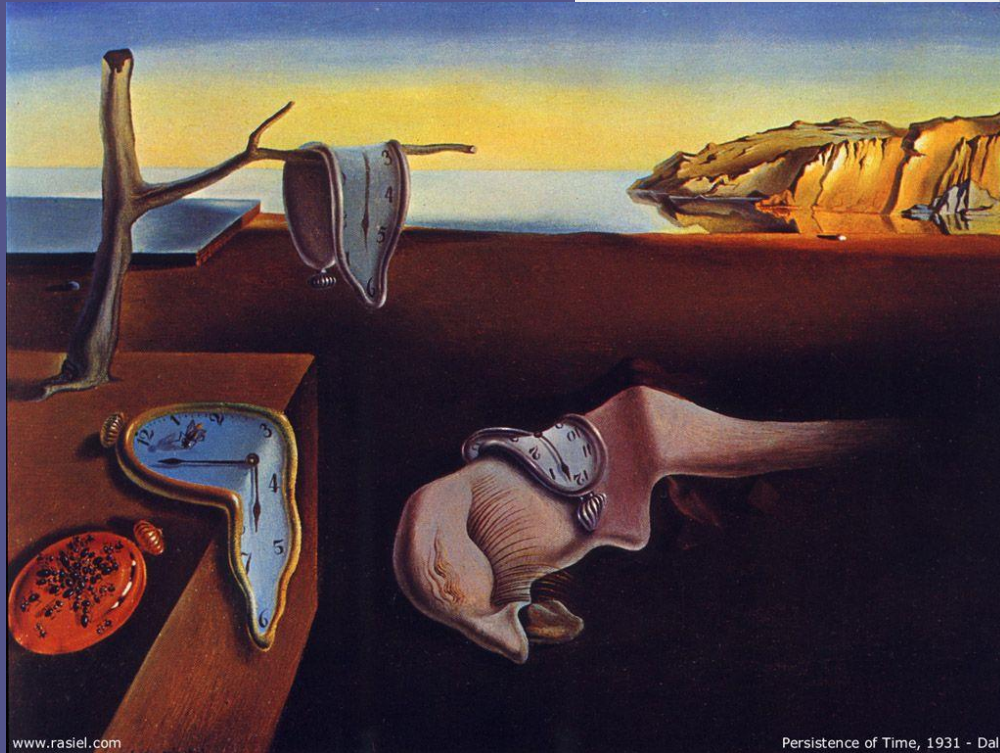
[저녁 있는 삶] 벼랑에 선 맞벌이들

배우자 있는 1178만 가구 중  
맞벌이가 43% 505만 가구  
야근인 아내 대신 칼퇴근하면  
"진급 관심없나" "애나 봐라" 비아냥  
"친정엄마 안도와주면 사표 쓸판"  
장시간 노동체제 한계 다다라

### '저녁 없는 삶' 470만 명...장시간 노동에 찌든 나라



<https://www.facebook.com/Grimeda> 



www.rasiel.com

Persistence of Time, 1931 - Dalí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